

# 평협소식

2008 제13호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번지 가톨릭회관 510호 TEL 02 777 2013, 757 7851 FAX 02 778 7427

<http://www.clak.or.kr> e-mail: clak@catholic.or.kr

발행일 : 2008. 3. 5 발행인 : 한홍순

##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2008년도(제41회) 정기총회

### ‘평신도 사도직 활성화’를 활동지표로 평신도 교육과 40주년 기념사업에 집중하기로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한홍순, 담당 민병덕 신부)는 2월 16일 오후 3시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에서 제41차 정기총회를 열고 한홍순 현 회장을 다시 선출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인 한홍순 회장은 올해 1월 서울평협 총회에서 회장으로 재선된 바 있다.

15개 교구 평협회장과 25개 운동단체들로 구성된 한국평협은 이날 13개 교구와 8개 단체의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평신도 사도직 활성화’를 올해 활동 지표로 정하고, 평신도 교육과 문화 복음화를 위한 우리성가 작사·작곡 공모 등의 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특히 올해 40주년을 맞아 백서를 발간하는 등 40주년 기념 사업을 중점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한국평협은 올해의 중점사업으로 ▲평신도 교육 강화 ▲문화의 복음화 ▲사회적 복음화 ▲가정의 복음화 ▲생명의 복음 실천 ▲국제 협력의 강화 ▲교회와 사회의 대화 – 사회포

## 싣는 순서

###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한국평협 회원 단체〉

- 레지오 마리애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
- 광주 중재자이신 마리아 세나뚜스
- 한국가톨릭 간호사협회
- 한국가톨릭의료협회
- 한국가톨릭 경제인회
- 동정
- 교황님의 가르침

럼 ▲사회사도직연구소 연구사업 ▲40주년 기념사업 등을 확정하여 발표하고, 평신도사도직 활성화를 위해 평신도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평신도교육과 세미나를 작년에 이어 상임위원회 기간을 이용해 연중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교회와 사회의 대화’라는 이름으로 계속 실시하고 있는 사회포럼을 더욱 시의성 있는 내용으로 준비하기로 했다. 또한 문화복음화의 일환으로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로 ‘우리성가 작곡 공모’를 실시하고, 작곡공모를 위한 ‘우리성가 노랫말 공모’도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평협 40주년을 맞아 평신도사도직 활동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에서 백서를 발간하고, 이에 걸맞은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또한 작년 한국평협 상임위원회에서 결의한 대로 124위 순교자와 최양업 증거자의 시복시성을 위한 기도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한편 사회사도직연구소가 작

년에 실시했던 평신도교육 실태조사의 결과보고와 함께 교육편람을 만들고, 평신도 사도직 단체를 위한 단체편람도 제작할 예정이다.

염수정 주교(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위원장)는 이날 미사강론을 통해 “급변하는 한국사회의 비복음적 가치를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한국교회 초석을 놓은 초창기 평신도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한다”며 아시아교회와 세계교회에서 제 몫을 다하고 한국교회 복음화에 앞장서는 평신도가 돼줄 것을 당부했다.

염 주교는 임기를 마친 상임위원(교구평협회장 : 대구대교구 이용기, 대전교구 김명중, 마산교구 박용기, 수원교구 안병철, 안동교구 강희용, 원주교구 윤봉옥, 상임단체장 : 꾸르실료 심재기, 대구 세나뚜스 박기탁, 한국 매리지 앤카운터 장무웅, 김정희 부부)에게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감사패 수여했다.



▲ 한국평협 정기총회에 참석한 각 교구 평협 임원들과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위원장 염수정 주교

## 세계적 거장 ‘시니스카’ 십자가전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40주년 기념 문화 사업의 하나로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4일까지 ‘시니스카’ 전시회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1층 평화화랑에



▲ 개막식에서 테이프 커팅을 하는 내외빈

서 가졌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 주한 이탈리아 문화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교황청 판테온 최고 문학예술원과 주한 교황대사관이 후원한 이번 전시회는 이탈리아 예술계의 거장인 ‘시니스카’의 56년간의 작품활동 가운데 십자가를 주제로 한 작품 43점을 전시했다.

전시회 첫날인 2월 27일 오후 5시에는 정진석 추기경과 에밀 폴 체릭 대주교(전 주한 교황 대사), 마시모 안드레아 레제리 주한 이탈리아 대사, 주한 이탈리아문화원 루초 잇조 원장과 주한 외교사절 등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 행사를 가졌다.

‘십자가 위의 죽음’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회에 대해 서울대교구 교구장 정진석 추기경은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작품의 가치 척도가 결정되는 요즘 시니스카의 종교화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준다”면서 “이번 전시는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 뿐 아니라 정신의 궁핍함을 느끼는 현대인에게 영적인 자양분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홍순 한국평협 회장 역시 인사말을 통해 “십자가의 아름다움과 십자가의 신비를 깊이 묵상하며 인간 정신을 경건하게 하느님께로 고양하는데 시니스카의 작품이 크게 이바지한다”며 이 전시회를 통해 이탈리아의 예술 세계를 접하고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을 건설하는 데 이바지하게 되기를 기원했다.

1929년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태어난 시니스카는 지난 56년간 회화와 조각, 도예, 무대미술, 귀금속 세공, 사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전방위 예술가이다. 그는 그동안 유럽, 미국, 남아프리카, 극동 지역, 동아시아 등에서 205차례의 개인전을 가졌으며 이탈리아 국·내외에서 258차례의 단체전을 가진 바 있다.

2003년에는 카를로 아젤리오 찰피(Carlo Azeglio Ciampi) 이탈리아 대통령으로부터 <비토리오 데시카-예술부문>을 수상했으며, 2005년에는 ‘뮤스 심포지엄’ 문화협회에서 예술 활동분야인 <소렌티나 반도상>을 받았다. 또한 2006년에는 회화부문 <소프레도 페트라시>상을 받았으며, 2007년 판테온에서 미술·문학원 최고 위원회로부터 조각부문 학자로

지명됐다.

한편 이번 전시회는 시니스카가 한국에서 갖는 두 번째 작품전이다. 첫 번째 작품전은 작년 12월 ‘시니스카:오염-공간 속의 구조’ 이었으며, 당시 한국에서의 첫 전시를 기념하기 위해 내한하기도 했다.

‘시니스카 십자가전’은 KBS 뉴스와 연합통신, 동아일보, 세계일보, 중앙일보, 한겨례신문, 한국경제신문, 한국일보, 코리아헤럴드 등 주요 일간지를 통해 보도됐다. 작품 판매수익은 전액 한국의 노인복지 위해 쓰여진다.

이어 제17대 회장에 현 회장인 한홍순 토마스 회장의 연임을 확정했다.

서울평협은 본당총회장, 교구 운동·단체장, 평협 임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 집전의 미사를 시작으로 한 이번 총회에서 2008년도 중점사업으로 △평신도교육의 활성화 △가정사도직 활성화 △생명의 문화전파 △복음화 2020운동을 통한 선교 활성화 △사회사도직 활성화 △순교자현양과 시복시성 운동 △40주년 기념사업 등을 확정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평신도학교 ‘공의회과정’을 개설하고, 지난해 수료자를 대상으로 한 ‘공의회 심화과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평신도학교에는 ‘공의회과정’은 물론 선교포럼, 가정문제워크숍, 민족화해학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평협 40주년을 맞아 백서 발간을 비롯해 40년의 역사를 성찰하고 계승, 발전하는 기념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문화 복음화 사업으로 서울대교구 성가합창제, 사랑·생명·가정 사진공모전과 한국평협과 함께 우리성가 작사·작곡 공모 등을 계속 이어 나가기로 했다.

한편 3호 안건 임원개선에서는 16대 회장을 맡은 한홍순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가 임기 2년의 17대 회장으로 연임됐고, 감사 선임은 상임위원회에, 부회장 선임은 회장에게 위임 키로 했다. 이에 앞서 서울평협은 지난해 12월 회장·부회장 및 감사 선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으로부터 제17대 회장 선거관리위원을 선임하고 회장 추천을 받았으며, 총회 직전 상임위원회를 열어

##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2008년도(제38회) 정기총회

#### “가정공동체를 통한 생명의 복음선포”를 활동 지표로 삼아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한홍순, 담당 민병덕 신부)는 지난 1월 19일 명동 가톨릭회관 7층 강당에서 2008년도(제38회) 정기총회를 열어 2007년도 사업보고와 결산승인, 2008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승인한 데



▲ 제38회 서울평협 정기총회 회의장면

총회 상정 안건을 논의하는 한편 회장 후보 지명자를 공개했다.

## 좋은영화보기 – ‘나니아 연대기’, ‘레미제라블’

서울대교구 평협이 매월 마지막 월요일 가톨릭회관 508호 평협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있는 ‘좋은영화 보기’는 적지만 꾸준히 찾아주는 관객들과 함께 올해도 1월 28일과 2월 25일 두차례 모임을 가졌다. 1월은 제2차 세계대전을 피해 시골 별장으로 피난을 간 네 명의 형제들의 모험을 그린 환타지 영화 ‘나니아연대기’를, 2월은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의 소설을 영화화한 ‘레미제라블’을 상영했다.

##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제38차 정기총회 ‘기억하여 행하여라’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김윤성, 담당 임기선 신부)는 2월 16일 정하상 교육회관에서 60개 본당 회장단과 6개 단체 임원 등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기억하여 행하여라’라는 주제로 제38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 정기총회 참석자들의 기념촬영

참가자들은 유흥식 주교의 개회미사와 여는 말씀으로 시작하여 곽승룡 신부의 ‘평신도 사목위원회의 리더십’을 주제로 한 강의를 듣고, 2007년 사업결산과 2008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했다. 대전평협은 교구설정 60주년을 맞아 교구 공동체의 새로운 도약에 중심에 설 것을 다짐했다.

##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신년 새배를 나누는 교구 사제와 평신도들

## 세계평화의 날 미사와 신년교례회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최중우, 담당 최상진 신부) 주최로 지난 1월 2일 가톨릭회관에서 마련된 ‘2008 인천교구 신년교례회’에서 사제, 수도자, 평협 임원, 박문초등학교 어린이, 교구 각 단체 대표자들이 최주교와 김병상·이학노 몬시뇰, 강용운 신부 등 교구 어르신들께 세배를 올리며 신년 덕담을 나눴다.

이에 앞서 인천교구는 같은 날 오전 11시 담동 주교좌성당에서 세계 평화의 날 미사를 봉헌했다. 교구장 최기산(보니파시오) 주교는 강

론에서 “교회는 가난한 자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그들이 곧 주님께서 명하신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사목목표 중 하나는 가정성화”라며 교구민 모두가 가족과 이웃 간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앞장설 것을 당부했다.

## 제17대 임원 임명장 수여식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2월 11일 인천교구청에서 최기산 주교의 주례로 제17대



▲ 임명장 수여식 후 최기산 주교와 기념촬영을 하는 인천 평협 제 17대 임원들

임원 출범미사를 봉헌하고 임원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회장 - 최중우 사도요한 ▲부회장 - 김영기 토마스 · 박정수 마르타 ▲총무부 - 부장 이충재 도미니코 · 차장 최경순 데레사 ▲전례부 - 부장 최선묵 아오스팅 · 차장 김영숙 말가리다 ▲재정부 - 부장 윤석만 세자요한 ▲교육선교부 - 부장 이병연 아녜스 ▲행사부 - 부장 김동철 다니엘 ▲사회사목부 - 부장 류근익 바오로 ▲도농부 - 부장 박차영 바오로 ▲홍보부 - 부장 박미선 아나스타시아

##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2008년도 상반기 총회장 연수 및 교구장과의 만남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정태경, 담당 문희종 신부)는 1월 19일 오전 9시부터 교구청 지하대강당에서 ‘2008년도 상반기 총회장 연수 및 교구장과의 만남’을 개최했다.

담당사제인 복음화국장 문희종 신부는 인사를 통해 각 본당의 정책이 교구장님의 사목방침과 맥을 같이 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 이어 2008년 바오로 해를 잘 맞이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과 지침을 설명했다.

교구의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한 강의에서 이영배 사무처장 신부는 2008년도 교구 방침을 소개하며 바오로의 해를 맞아 총회장 중심으로 선교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사회복음화국 교정사목전담 김기원 신부의 교정사목 소개, 사회복음화국 이주사목전담 최병조 신부의 이주사목 소개 등의 강의로 이뤄진 일정 이외에 사회복음화국장 이기수 신부의 현혈운동에 관한 홍보가 있었다.

교구장 최덕기 바오로 주교는 ‘수원교구의



▲ 교구장 · 지도신부 · 17대 평협회장과 18대 수원교구평협 임원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한 특강에서 교구 및 각 본당의 현안들을 언급하고, “예수님께서 복음화를 어떻게 완성하셨는지를 알고, 이에 맞추어 교구가 어떻게 복음화를 이뤄나갈지에 대한 비전과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원교구가 나아가야 할 미래에 대해, ‘뿌리와 얼을 찾아 교구, 대리구, 본당, 소 공동체 및 단체 안에서 복음화를 이룰 때 개인과 가정이 성화되고 지역사회 복음화를 이루는 것은 물론 나아가 해외선교에서도 복음화의 꽃과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연수에서는 지난 9월 선출된 신임회장단과 사무국 임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와 전임 회장단에 대한 감사패 수여가 있었다. 17대 수원평협 회장으로 임명된 정태경 마티아 회장은 “바오로 해에 발맞춰 모든 본당 총회장들과 협력해 선교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미리내 마라톤 대회, 꾸르실료 영성관 건립 등 굵직한 사업 추진을 돋고 교구 설정 50주년(2013년) 준비에도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매년 상·하반기에 교구장과의 만남을 중심으로 개최되는 총회장 연수는 올해부터 효율성을 감안해 상반기에는 당일로, 하반기에는 1박2일의 일정으로 준비된다. 하반기 연수는 7월 5일부터 6일까지 아론의 집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평협 및 제 단체 사목방문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및 제 단체의 전년도 활동을 결산하고, 새해 사업계획을 보고하는 ‘2008 평협 및 제 단체 사목방문’이 2월 16일 오후 2시 30분부터 교구청 지하대강

당에서 실시됐다.

‘바오로의 해’에 대한 강의에서 문희종(요한 세례자) 복음화국장 신부는 바오로 사도의 정신에 따라 교회의 사명인 ‘선교’에 초점을 맞춰 준비하고 시행해줄 것을 강조했고, 평협과 제 단체 대표는 2007년도의 중점사업과 성과를 발표하고 2008년도의 사업계획과 중점목표를 보고했다.

이용훈(마티아) 총대리 주교는 교구장의 사목 방향에 따라 각 단체별로 고유한 카리스마로서 회원들이 성화되고, 교회와 교구의 발전을 위해 충실히 살아온 것을 치하했다. 또 가정이 해체되어가는 사회 전반의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 가정의 모범적인 모습이 세상 복음화의 출발이므로 ‘가정성화운동’에 꾸준히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총평을 통해 고유의 영성과 단체의 설립 목적에 따라 항상 계획과 목표를 잘 세우고 실행하되 전체 교회의 큰 틀에 보조를 맞춰야 하며, 예산의 수립과 집행 및 결산을 명확히 할 것을 당부했다.



▲ 평협 및 제 단체 사목방문에서 강의중인 이용훈 주교

한편 이 주교는 2013년 수원교구의 희년을 맞는 50주년 준비와 관련, 교구 사제들과 특히 평신도들을 중심으로 교구의 100년을 향한 비전이 나와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평협과 19개 단체에서 참석한 60여 명의 임원들은 사목방문을 통해 2008년도의 사업계획이 교구장의 사목방침과 ‘바오로의 해’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더욱 성실한 실천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 마산평협 신임 회장단의 인사

문 · 전훈주 형제를 선임했다.

마산평협은 교구장 사목 방침에 따라 평신도 사도직 운동 지침을 마련하고 ‘내적 쇄신을 위한 평신도 사도직 실천운동’으로 ▲기도하는 평신도의 삶 ▲공부하는 평신도의 삶 ▲성사 생활 실천하는 평신도의 삶을 살고 ‘주인의식 고취를 위한 평신도 사도직 실천운동’으로 ▲복음화를 실천하는 평신도의 삶 ▲증거(섬김과 봉사)하는 평신도의 삶 ▲사명을 다하는 평신도의 삶을 살 것을 다짐했다.

평협은 정기총회 결의문을 통해 ▲성체성사의 신비를 사는 신앙생활을 통해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로 거듭난다 ▲가정기도의 생활화로 가정교회를 바로 세운다 ▲냉담 예방 및 쉬는 교우 찾기 활동을 강화한다 ▲유아, 청소년 사목 활동을 강화해 교회의 미래를 튼튼히 한다 등 실천사항을 선언하고 이를 토대로 2010년 까지 복음화율 10% 주일미사 참석률 30% 달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결의했다.

##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2008년 대구대교구 신년교례회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이해도, 담당 김율석 신부)는 1월 1일 가톨릭 교육원 대강당에서 2008년 대구대교구 신년 교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최영수(요한) 대주교와 교구 사제들, 평신도 700여명이 참석하였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2011년 교구설정 100주년, 평신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교구장님의 말씀이 있었다. 그리고 평신도들은 2008년 교구장 사목지침을 잘 준수 할 것을 다짐했다.

##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2008년 정기총회 개최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강신근, 담당 유영봉 몬시뇰)는 1월 26~27일 부곡 일성콘도 대연회장에서 ‘2008년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정기세미나 및 정기총회’를 열어 신임 회장에 강신근(안드레아)씨를 선임하고 수석부회장에 손해규 시몬, 감사에 최병

##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제37차 정기총회 개최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정기수, 담당 김종주 신부)는 1월 26일 평생교육원 연수관에서 각 본당 사목협의회장과 교구단위 제 단체장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7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서는 2007년도 교구평협 활동상황과 결산보고에 이어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심의, 승인됐다. 또한 임원 선출에서는 정기수 회장과 홍의웅 부회장이 제30대 회장과 부회장으로 연임됐으며, 감사에는 김주호, 김상덕 형제가 새로이 선출됐다. 교구장 최창무 대주교의 주례로 봉헌된 파견미사에서는 교구장 최창무 대주교와 김희중 총대리 주교께 새해 인사를 드렸으며, 기념촬영 후 나눔의



#### ▲ 정기총회 후 기념촬영

시간을 가졌다.

## 임원 임명장 수여식 및 축복미사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2월 14일  
교구청 소성당에서 제30대 교구평협(회장 정  
기수, 담당 김종주 신부)와 제3대 교구 여성  
위원회(위원장 황순자, 담당 김종주 신부) 신  
임 임원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4년 동안 여  
성위원장과 교구평협 부회장을 맡아 헌신적으

로 봉사한 이미현 실비아 자매에게는 공로패



#### ▲ 신임 임원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

가 수  
여 됐  
다.  
  
축복  
미사를  
집전한  
김희중

총대리 주교는 “오늘 겸허히 소임을 맡아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그 소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항구하고 한결같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인간적인 능력이나 말재주가 아닌 하느님의 몽당연필이 되어 사심 없는 봉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라며 “남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 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라는 복음말씀을 염두에 둘 것을 당부했다.

## ‘바오로 해’ 기념 성경필사운동 전개

여성위원회 제4차 정기총회 개최

광주대교구 여성위원회는 1월 19일 평생교육

원에서 제4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각 본당 여성부회장과 여성분과장 80여명이 모인 가운데 김종주 담당 신부의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주제의 특강과 ‘우리춤 소개’ 시간이 마련돼 본당 어르신 사목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다. 이어 정기총회와 제3대 회장단 선거를 열어 황순자(마리아)씨를 위원장에, 최지은(비비나)씨를 부위원장에, 정춘희(살로메)씨를 감사로 선출했다.



▲ 우리춤을 열심히 배우고 있는 모습

## 지구별 사목협의회 및 제단체 임원 연수회

지구평협에서는 각 본당의 사목협의회 임원과 단체 임원을 대상으로 연수회를 가졌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의 주제로 김종주 루카(사목국장) 신부가,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의 주제로 조영대 프란치스코(보성성당 주임) 신부가 각각 특강을 했다. 이후 분과별 토의와 발표를 통해 각 본당 및 임원간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 ▷ 서부지구연수회 : 2월17일 / 염주동성당 / 140여명 참석
- ▷ 목포지구연수회 : 2월24일 / 산정동성당 레지오마리애기념관 / 150여명 참석



▲ 임원연수회 모습(위: 목포지구평협, 아래: 서부지구평협)

##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제41차 정기총회 개최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회장 김주호 마태오, 담당 양희문 신부)는 2월 23일 평생교육원 대성당에서 회원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제4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 레지나 수녀(사랑의 딸회)의 영성교육이 있었고 정기총회에서는 김주호(마태오) 형제가 신임회장으로 인준을 받고 임명장을 받았다.

##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사랑봉사상 시상식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강상근, 담당 유장훈 몬시뇰)는 1월 3일 중앙성당에서 열린 신년하례식에서 사랑봉사상 시상식을 가

졌다.

사랑봉사상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교회 내외에서 평신도들이 각자 자신의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소명의식을 가지고 생활한 개인과 단체를 가려 사랑봉사, 생명환경, 사회문화 부문으로 나눠 시상한다.

올해 사랑부문 개인에는 김봉옥 빙첸시오 형제가 선정됐다. 그는 병원 가톨릭 봉사자회 회원으로 20여 년간 환자들을 위로하고 병원 내 교리교사로 활동하면서 환자가 퇴원할 경우 본당에 연락해 영세할 수 있도록 도왔다. 현재 까지 교리 교사로 활동하면서 병원에서 세례를 받도록 한 형제자매들이 115명인데, 그중에서 27명의 대부를 섰다.

단체부문은 팔마성당 사회복지분과에서 받았다. 40대에서 60대의 형제자매님들로 구성된 회원들은 장애인 복지회관을 중심으로 관내 전체 청소 및 외부 화단 풀뽑기 작업, 통증치료실 보조, 식당반찬 지원 서비스 보조 등 모든 굽은 일을 도맡아 봉사했다.



▲ 사랑봉사상 시상

## 전주교구 서품식 축사

교구민들의 큰 경사이자 자랑인 새 사제, 정광철(마르첼리노), 김관우(스테파노), 하철민

(안토니오)신부 등 부제에 대한 서품식이 지난 1월 17일(목) 전주교구 주 교좌 중앙성당에서 거행됐다. 교구장 이병호 주교와 사제단과 수도자 평신도 등 2,500명이 참석한 서품식에서 서동호(바오로) 평협 회장은 “새 사제들이 사목현장에서 사목활동을 하실 때에는 오늘 신품성사로 사제직에 부여되는 권위와 함께 신부님들의 선한 인품과 삶의 표양에서 우리나라 오는 권위로서 신자들을 지도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축사를 했다.

## 제33차 정기 총회

### 신임회장에 강상근 형제 선임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강상근, 담당 유장훈 몬시뇰)는 2월 23일 전주교구청 4층 강당에서 제33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담당사제인 유장훈 총대리 몬시뇰이 교의헌장을 중심으로 한 「평신도사도직」과 한국 천주교회 사목지침서를 중심으로 한 「사목평의회」를 강의하고 이어서 감사보고, 2007년도 결산보고, 2008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임원선출, 교구장 이병호 주교주례의 파견미사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평협 부회장이며 전주파티마의 모후 레지아 단장인 강상근 씨를 새 평협회장으로 선출하고, 이석관(덕진본당 사목회장), 박병래(송천동본당 사목회장)씨를 감사로 선출했다.

## 한국평협 회원 단체 소식

### 레지오 마리애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

#### 서울 세나뚜스 직속 레지아 지도신부 및 간부 간담회 개최

레지오 마리애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단장 팽종섭, 담당 민병덕 신부)는 지난 1월 30일에서 31일까지 배론성지에서 서울 세나뚜스 직속 7개 교구 레지아 지도 신부들과 간부들이 함께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 세나뚜스 담당 민병덕 신부는 미사 강론을 통해 “서울 세나뚜스가 승격된 지 30주년을 맞아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구의 지도 신부들과 간부들을 모시고 현재 한국 레지오 마리애의 당면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면서 더욱 돋독한 사귐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팽종섭 단장으로부터 세나뚜스 승격 후의 활동사항에 대한 보고, 친교와 나눔의 시간에 이어 다음 날 정오까지 레지오 마리애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별 분임토의가 있었다. 참석자들은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으며, 이러한 모임을 정례화하면 좋겠다”고 입을 모으며 파견미사를 봉헌했다.

#### 청년 뽀레시디움 간부 교육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는 청년단원 육성화



▲ 청년 뽀레시디움 간부교육

방안의 하나로 먼저 간부들의 사명의식을 고취하고 자질을 향상하기 위해 간부별 직책교육을 실시했다.

2월 17일에는 산하 청년 뽀레시디움 단장 141명을 대상으로 명동 사목센터에서 ‘레지오 간부의 사명’에 대해 한관섭(미카엘) 부단장의 교육이 있었고 오후에는 ‘간부의 역할’, ‘청년 활동의 유형과 방법’, ‘새단원 모집 유형 및 방안’, ‘상급 평의회 및 본당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한 그룹별 열띤 토론과 발표가 진행됐다. 담당 민병덕 신부는 파견미사 강론을 통해 그간의 청년 레지오 활동을 치하했다.

이어 2월 20일에는 300여명의 청년 3간부들이 함께한 가운데 한관섭(미카엘) 부단장이 부단장과 회계의 역할에 대해, 정지오(세례자요한) 서기는 서기 직책의 중요성과 실무에 대해 강의했다.

### 광주 중재자이신 마리아 세나뚜스

#### 소년 단원교육

광주 중재자이신 마리아 세나뚜스(단장 전재옥, 담당 김양희 신부)는 지난 1월 6일 소년 레



▲ 소년 레지오 단원교육에서 강의중인 박대남 신부

지오 단원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염주대건본당 박대남 신부 강의)과 목포 산정동성당(금호동본당 고근석 신부)에서 단원교육을 실시했다.

시작기도와 묵주기도에 이어진 강의에서 박대남 신부는 “미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밥과 같은 것이다. 내가 주일미사를 참례하고 보내는 한주일과 주일미사를 참례하지 않고 보내는 한 주간을 비교해 보았을 때 꼭 했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기분으로 보냈을 것이다. 그만큼 미사는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하느님께서 은총을 주시는 소중한 밥과 같은 것이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밥이다”라고 강조하며 ‘미사의 값’이라는 제목의 영상물을 소년단원들에게 보여주었다.

또 박 신부는 “소년 레지오 단원들은 성모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되새겨 보면서 입당성가가 시작하고 마침성가 끝날 때까지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드린다면 큰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모님의 군대인 소년 레지오 단원들 모두 하느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단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청년 단원 교육

광주 중재자이신 마리아 세나뚜스는 1월 27일 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청년 뻔레시디움 단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단원 교육을 실시했다.

시작기도와 묵주기도에 이어 김영대 전 세나뚜스 단장은 ‘청년단원의 비전’이라는 주제의 강의에서 “목표를 세우고 꿈을 꾸다면 꿈은 이루어진다. 확신을 가지고 은총의 어좌로 나가자. 청년단원들은 교회의 희망이다. 하느님께 기도드린다면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서 자리 잡을 것이며 지금의 젊음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청년 세나뚜스 교육

두번째 강의에서 현 세나뚜스 전재옥 단장이 ‘능력의 단원들이여!’라는 주제로 “레지오 활동을 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한다. 용기는 단원들의 필수적인 덕목이며 레지오 정신이다. 프랭크 더프는 성모님과 일치하여 상징적 행동을 함으로써 불가능해 보이는 활동을 해결해 나갔다. 청년단원들도 성모님을 본받아 체면을 없애고 용기와 겸손과 책임감을 가지고 레지오 활동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오후 강의에서 광주 북부지구 지구장 손병현(바실리오) 신부는 ‘믿음의 열정을 가진

소년 다윗과 같이’라는 주제로 “신앙의 삶이 어떠해야하는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하는가? 신앙인의 삶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한다”며 “사랑이신 하느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상상하고 하느님의 뜻이 나의 삶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 한국가톨릭 경제인회

### 한국(28차) 및 서울대교구(25차) 정기총회

한국가톨릭 경제인회는 2008년도 정기총회를 1월 19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에서 개최했다. 각 교구 회장과 임원, 서울대교구 회원 등 73명이 참석한 이번 총회는 1부 미사와 2부 총회, 3부 신년교례회로 진행됐으며, 조학문 담당사제와 회원들이 함께한 뜻 깊은 시간이었다.

회의 안건은 2007년도 결산과 감사보고, 2008년 사업계획과 예산심의에 이어 감사선임으로 이어졌다. 후임 감사는 임기를 마친 윤재원 감사가 연임하기로 했다. 그간 13차에 걸쳐 회칙도 새로이 내용을 바꾸어, 한국가톨릭 경제인회와 서울대교구 가톨릭경제인회를 분리했다. 한국가톨릭경제인회 회칙은 변함이 없으며, 서울대교구 경제인회만 사정에 맞게 변경하기로 했다.

또 회원자격 중 정회원 외 명예회원 준회원 제를 신설했다. 그리고 전임 회장은 상임고문으로서 회장 직무를 지원하기로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또한 그간 8개 분과를 주축으로 활동해왔으나 일부 분과를 합병하여 6개 분과로 조정했다.



▲ 정기총회 미사 봉헌

마지막 안건은 임기를 마친 회장선출이었는데 여러 사정으로 당분간 김철중 수석부회장이 차기 회장 선임 때까지 회장직무 대행을 맡기로 했다.

올해 중점사업은 서울대교구 경제인회를 분리 독립하여 한국가톨릭경제인회 전국 협의체를 발족하며, 회원 증강 노력을 통해 회원과 임원을 정예화하는 것이다. 또한 전례행사 강화와 사회사목 활동 활성화, 사무처 서비스 개선을 올해 목표로 정했다.

## 한국가톨릭의료협회

### 해외의료선교단 새 임원 임명장 수여식



▲ 최영식 신부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있는 김영훈 단장

한국가톨릭의료협회(회장 최영식 신부)는 해외의료선교단 새 임원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1월 23일 서울 반포동 가톨릭대 성의교정 의과학연구원 3층 회의실에서 가졌다.

단장에는 김영훈 교수(의저부성모병원 소아과), 부단장 4명에는 최환석 교수(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이채혁 교수(백병원 신경외과), 원사덕 교수(나노팜 제약), 김남초 교수(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가 각각 임명됐으며, 최정진 신부가 지도를, 박영혜 수녀가 간사로 일하게

됐다. 임기는 2년이다.

해외 및 북한 의료선교단 제1차 회의는 1월 30일 ‘농촌’에서, 2차 회의는 2월 19일 의과학 연구원 1026호에서 있었다.

### 이호열신부(살레시오회), 한국가톨릭의료협회 도움으로 몽골 두 어린이 무료치료

한국가톨릭의료협회(회장 최영식 신부)는 몽골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이호열 신부(살레시오회)로부터 아이들의 딱한 사정을 접하고 치료를 도와주기 위해 강남성모병원과 연결하여 주었다. 주인공은 화상으로 왼쪽 손가락 두 개가 붙어버린 간철루멍(10)군과 심장병 등을 앓고 있는 이질체체크(8)양.

이질체체크는 상태가 예상보다 심각했다. 심장병은 수술을 받지 않고도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였지만 뜻밖에도 복부 대동맥류가 심각했고 한쪽 신장도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또 중이염에 걸려 왼쪽 귀 고막을 상실했고 오른쪽 귀도 염증이 심해 그대로 방치하면 청력을 완전히 잃을 것으로 보였다. 왼쪽 서해부(사타구니)에서는 종양이 뭉쳐진 종괴(腫塊)도 발견됐다. 치료를 맡은 강남성모병원은 복합 질환을 앓고 있는 이질체체크의 건강을 최대



▲ 한국가톨릭의료협회 도움으로 치료를 받게된 간철루멍군과 이질체체크양

한 되찾아 주기 위해 외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등 여러 진료과 전문의들 협진을 통해 치료에 힘을 쏟고 있다.

정밀검사 결과 간철루멍은 다행히 심각하지 않아 14일 강남성모병원 성형외과 안상태 교수 집도로 붙어있던 손가락 피부를 떼어내는 수술을 받고 현재 통원치료 중이다.

간철루멍은 두 살 때 엄마가 한 눈을 파는 사이 뜨거운 국물 냄비에 손을 넣었다 심한 화상을 입어 왼쪽 중지와 약지 손가락 피부가 붙어 버렸다. 말 그대로 찢어지게 가난하고 몽골 의료수준이 열악한 탓에 수술을 받지 못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했다. 심장병 등을 앓고 있던 이질체체크도 마찬가지. 현지 의료수준으로는 제대로 된 치료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또한 한국가톨릭의료협회는 2007년 12월 초에 1차 진료 및 치료를 하고 돌아갔던 몽골 자갈란트지역의 혈관증을 앓고 있는 바트칸과 청각장애아 아나르의 두아이를 초청하여 2차 후속치료도 2008년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해주었다.

## 한국가톨릭의료협회지 Health & Mission 새봄호(통권 10) 발간



계간으로 발간되는 가톨릭 의료 저널 “Health & Mission”의 새봄호가 발간되었다.

한국가톨릭의료협회지 “Health & Mission”은 가톨릭 병원협회, 가톨릭의사협회, 가톨릭간호사협회, 가톨릭약사회가 공동으로 발간하는 의료 전문

저널이다.

가톨릭 의료, 의료경영, 이념과 관련된 진솔한 정보와 사고를 전하는 전문지로, 전국 가톨릭 의료인들을 하나로 묶는 구심체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정보 전달과 인적 교류 등을 하고 있다.

## 동정

### 한국평협 여규태 고문, 한국유도고단자회 회장 선임

여규태(요셉) 고문이 1월 23일 사단법인 한국유도고단자회 전국총회에서 회장에 선출됐다. 유도고단자회는 6단 이상의 모임이며, 회장 임기는 4년이다.

### 청주평협 정영근 회장 모친상

청주교구 평협 정영근 라우렌시오 회장의 모친 한남식(안나) 여사께서 지난 2월 12일 선종하셨다. 장례미사는 2월 14일(목) 오전 10시 사직동 성당에서 봉헌되었다.

### 사회사도직연구소 오용석 위원 아들 결혼

한국평협 사회사도직연구소 오용석 연구위원의 아들 오성은 마리트노의 혼배성사가 지난 2월 16일 토요일 논현2동 성당에서 봉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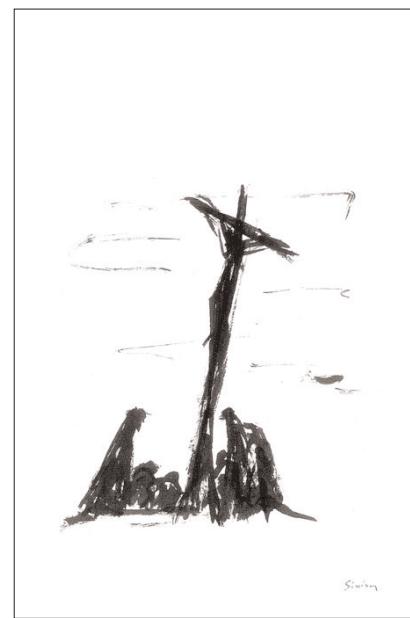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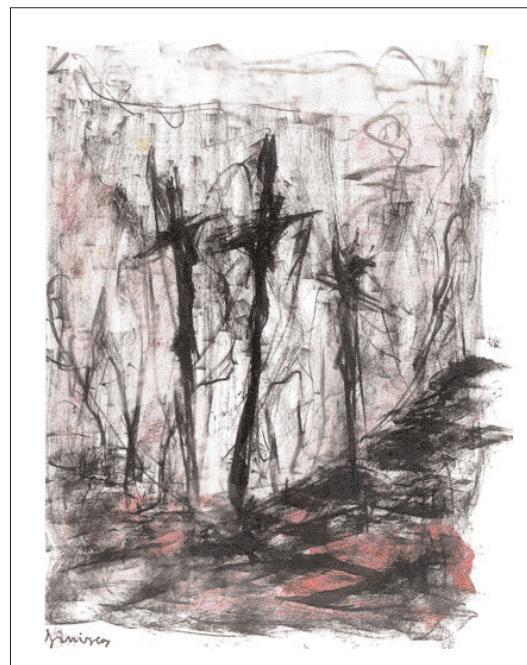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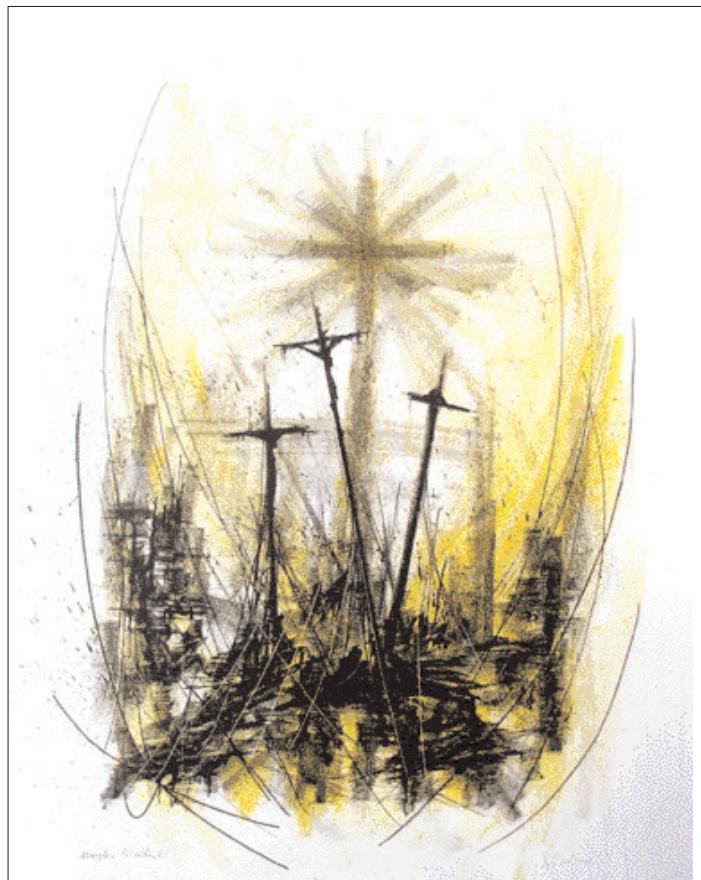
### 원주평협 윤봉옥 요셉 직전 회장, 모친상

원주교구 평협의 직전 회장인 윤봉옥 회장의 모친 이분예 카타리나 여사께서 지난 3월 4일 선종하셨다. 장례미사는 6일(목) 오전 6시 30분 원동성당에서 봉헌됐다.

# SINISCA

## Crocifissioni

시니스카 십자가전 ‘십자가 위의 죽음’ 지상전시



## <교황님의 가르침>

다음은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 2008년 3월 2일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신자들에게 하신 삼종기도 훈화말씀이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번 사순시기에 지내는 주일들에 전례는 우리에게 요한 복음서를 통해 세례의 참되고 고유한 여정을 걸어가게 해 줍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생명의 물’을 선물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고쳐 주심으로써 자신이 ‘세상의 빛’ 이심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 다음 주일에는 자신의 친구인 라자로를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써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 이심을 알려 주시게 됩니다. 물과 빛과 생명은 세례의 상징입니다. 세례는 믿는 이들을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면서, 이들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신비에 잠기게 하는 성사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 이야기(요한 9, 1-41)를 잠시 생각해 봅시다. 당시 일반적인 사고방식대로 제자들은 그 사람이 눈먼 것은 당연히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부모가 지은 죄값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선입견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리 된 것이다”(요한 9, 3).

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배려 깊고 지혜로운 사랑이신 하느님의 생생한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한계와 고통을 지니고 있는 인간을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가 지을 수 있는 죄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인간을 창

조하신 하느님의 뜻을 생각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엄숙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우리는 … 해야 한다. …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요한 9, 5).

그리고 나서 곧 행동으로 옮기어 땅에 침을 뱉고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눈먼 사람의 눈에  
바르십니다. 이 행동은 은연중에 인간 창조를 생각나게 합니다. 성경은 하느님께서 빛으  
시고 숨을 불어넣어 생명체로 만드신 흙을 상징으로 사용하여 인간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창세 2, 7 참조). ‘아담’은 실은 ‘흙’을 뜻합니다. 그리고 인간 육신은 사실상 작  
은 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눈먼 사람을 고쳐 주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창조  
사업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치유는 격한 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그 일  
을 하시어 바리사이들 생각으로는 안식일 계명을 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 이  
야기 끝 대목에서 예수님과 눈먼 사람은 둘 다 바리사이들에게 “밖으로 쫓겨납니다.” 왜  
냐하면 예수님은 법을 어기셨기 때문이고 눈먼 사람은 고쳐지기는 하였지만 태어날 때부  
터 죄인으로 낙인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고쳐주신 눈먼 사람에게 자신은 심판하려, 치유할 수 있는 눈먼 사  
람들을 자기는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치유 받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떼어놓으려  
세상에 왔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에게는 스스로 이념의 안전  
체계를 구축하려는 강력한 유혹이 있습니다. 심지어 종교도 무신론이나 세속주의도 이  
체계의 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은 자신의 이기주의에 눈  
이 멀게 됩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주시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하  
느님의 빛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눈이 보이지 않음을, 우  
리의 단련을, 특히 성경이 “커다란 죄악”(시편 19, 14)이라고 하는 오만을 고백합시다. 그  
리스도님을 육신으로 수태하심으로써 세상에 참 빛을 주신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님,  
이 일을 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 제2회 우리성가 작곡 공모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우리성가 작곡을 공모합니다.

우리 정서에 잘 어울리는 성가의 창작과 육성으로  
신자들이 하느님과 더욱 일치하도록 하며,  
전례의 토착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우리성가 창작 공모에 역량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응모마감 : 2008년 4월 30일까지

◆ 당선작 발표 : 2008년 5월중 발표

◆ 작품 : 우리성가 노랫말 공모에서 선정된 가사 중 자유로이 골라  
전례에 쓸 수 있는 2성부 이상의 합창곡으로 작곡

※ 악보와 1절 이상 연주한 반주녹음(MR)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랫말은 한국평협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www.clak.or.kr> E-mail: clak@catholic.or.kr

◆ 응모자격 : 제한 없음

◆ 시상 최우수상 1편 / 상패와 상금 2백만원

우수상 2편 / 상패와 상금 각 1백만원

장려상 3편 / 상패와 상금 각 50만원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100-809) 서울 중구 명동 2가 1번지 가톨릭회관 510호

☎ 777-2013 ? 757-7851 / FAX 778-7427

Homepage: <http://www.clak.or.kr> E-mail: clak@catholic.or.kr